『대순사상논총』 제58집 (2026), pp.183~218
https://doi.org/10.25050/jdaos.2026.58.0.183

전북 무주군 안성면 '상하두향약/두남향약'의 특성과 복합-문화유산적 가치

허 정 주 *

■ 국문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향약으로는 정읍시의 고현향약과 장군리향약, 순창군의 이암/구림향약, 남원시의 원동향약과 입암향약, 진안군의 주천향약, 장수군의 계남향약, 무주군 상하두향약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고현향약 고문서들은 국가 보물로 지정되었고, 원동향약 관련 고문서는 전북 유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계남향약은 관련 고문서들이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무주군 상하두향약을 비롯하여 몇몇 고문서들은 아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정된 것들도 유형유산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향약-공동체 행위들은 그 어느 것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지금도 전승 현장에 살아 전승되고 있는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상하두향약'의 전승 실태 현황과 구체적 양상, 그리고 문화유산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향약의 의의와 가치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상하두향약 관련 문화유산들은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양면성을 가

* 전북대학교 농악/풍물굿연구소 책임연구원 · 울댓해리티지연구소 소장,
E-mail: hjjckbk@naver.com

지고 있기 때문에,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향약 관련 고문서・건물・기타 유물 및 유적들은 유형유산으로, 풍신제 제의 및 기타 일련의 관습 행위들은 무형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향약을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하려면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동시에 지정하는 방식인 '복합-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주제어 : 상하두향약(上下斗鄕約), 두남향약(斗藍鄕約), 복합-문화유산, 풍신제(風神祭), 두남재(斗藍齋), 전북 무주군 안성면

Ⅰ. 서언
Ⅱ. 상하두향약의 역사적 전개 양상
Ⅲ. 문화유산으로서 상하두향약의 특성 및 가치
Ⅳ. 결어

Ⅰ. 서언

향약이란 '향촌규약(鄕村規約)'의 준말로, 조선시대 지방 향촌사회에서 상부상조·자치·사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만들어진 자치법규 혹은 그런 자치규범에 의해 운영되어 온 공동체조직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향약의 기원은 중국 송나라의 여씨향약(呂氏鄕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자(朱子)에 의해 증보된 주자향약은 명·청시대에 국령으로 전국에 실시되었다.

향약은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성리학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사상적으로도 '마을 공동체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동체의 문화적 제도, 규범에 끼친 영향 또한 지대하다. 향약이 성리학에 입각한 군현 단위의 공동체적 자치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마을 단위로 확산되었다. 즉 '향약(鄕約)'은 마을 문화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규범으로서 그 영향력은 미약하지만 현재까지 운용되는 지역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사례로서 본고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의 4개 마을, 두문·궁대·안기·도촌 마을이 연합으로 전승해 오고 있는 '상하두향약/두남향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향약으로는 정읍시 고현향약, 정읍시 태인읍 장군리향약[1], 순창군 이암/구림향약,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원동향약, 남원시 금지면 입암향약, 진안 주천향약, 장수군 계남면 계남향약,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상하두향약 등이 있다.

정읍시 고현향약은 일찍이 조선 성종 6년(1475년)에 불우헌 정극인이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및 시산리 일대에서 실시한 향음주례가 있었고, 그 전통을 계승한 지역 후손들이 후대에 고현향약 전승으로 이어졌었다. 이 향약은 1977년까지 50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관련 고문서들은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2]

정읍시 장군리향약은 현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에 전승되던 향약으로 영조 38년(1762년)에 계(契)로부터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영조 48년(1772)년에 「남전향약」과는 달리 덕업상권・환난상휼・도적-질병-사상-벌칙 등 3조의 향약 절목을 처음 만들어 실행하였다. 벌칙 3조에는 극벌・중벌・경벌의 3가지 종류를 두었으며, 고현향약과 같이 출향이나 손도라는 벌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향약은 이후에도 1894년까지 120년간 계속되다 사라졌다. 관련 고문서는 정읍시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순창군 이암향약(耳巖鄕約)/구림향약은 최근 발굴된 향약 자료로, 서문・향약조목 등 24쪽 분량의 8조항 향약 규정으로 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발발 직전인 1893년에 만들어진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좌목에 224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이 '작은놈・성아랫놈・돌쇠・노랑이・태노미' 등의 노비로 추정되는 이름도 있어서 주목된다.[3]

남원시 원동향약(源洞鄕約)은 선조 5년(1572년) 주천면 호경리 용호

1) 김익두・허정주・이춘구 외, 『한국 향약의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1차 조사 및 세미나 보고서: 정읍지역 향약을 중심으로』(정읍학연구회・민족문화연구소, 2019).

2) 허정주・김익두, 『샘고을[井邑] 원촌(院村) 마을: 호남 제일의 선비 마을』(서울: 광대와바다, 2019), pp.109-119.

3) 설동화, 「순창 이암면/구림면 향약안의 발굴과 향약의 역사」, 『순창문화』 18 (2024), pp.59-68.

서원(龍湖書院) 유림들에 의해 설립되어 420여 년간 계승된 향약으로 그 고문서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유형유산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2025년 현재에도 호경리 인근 일대 주민들 약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남원시 입암향약(笠巖鄕約)은 정조 19년(1795년)부터 지금까지 계승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고문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유형유산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주천향약(朱川鄕約)은 숙종 26년(1700년)에 설립되어 1908년까지 향약 활동을 지속하다 소멸되었다. 전북 동부-산간지역 최초의 향약이란 의의가 있다.

장수군 계남향약(溪南鄕約)은 장수군 계남면에 계승되고 있는 향약으로, 근현대 초기인 1915년에 주민들이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향촌 자치규약이며, 2018년 11월 22일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유형) 제1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4] 지금도 계남면 면민들에 의해 계승 실행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항일의식에 기반하여 설립된 근현대 향약이라는 특징이 있다. 전통 향약이 근현대에 들어와 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족정신 발양을 위해 새로운 근현대적 민족-공동체 조직 형태로 재탄생한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는 의미가 있다.

무주군 상하두향약(上下斗鄕約)은 두문마을 출신 반남박씨(潘南朴氏) 박남수(朴南壽, 1797년~미상) 옹이 중심이 되어 1820년 즈음에 창립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두향약의 근본 목표는 향약의 기본 정신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이라는 강령 덕목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도 해당 두문·궁대·안기·도촌 4개 마을 주민들이 주도되어 지속적으로 전승해 오고 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지역의 향약 중에서 지금도 살아남아 전승 현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향약은 남원시 원동향약·입암향약, 무주군 안성 상하두향약 그리고 장수 계남향약 등이다. 이 중에 고현향약 고문서들은 국가 보물로 지정되었고, 원동향약과 입암

4) 계남향약100년사추진위원회, 『계남향약백년사』 (장수: 계남향약소, 2014).

향약은 관련 고문서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계남향약은 관련 고문서들이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관련 고문서들은 아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전북지역 향약 연구는 고문서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다.[5][6] 전북지역의 현존하는 향약 사례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상하두향약'에 대해서는 『무주군지』[7]와 『안성면지』에 '두남재향약(斗藍齋鄕約)', '두남재 향약소지(斗藍齋 鄕約所址)'[8] 내용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조사나 연구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지금도 전승 현장에 살아 전승되고 있는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상하두향약'의 전승 실태와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의의와 가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청 2025, 2026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현재까지 현지조사와 문헌연구 등을 실시하여 작성되었다.

---

5) 한미라, 「1893년 전라도관찰사 김문현(金文鉉)의 향약 시행과 운영 구조: 남원부와 옥구현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53 (2021); 한미라, 「19세기 말 향촌지배질서 위기에 대한 대응 양상: 전라도 용담향약(龍潭鄕約)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4-2 (2021); 한미라, 「18~19세기 전라도 남원 기지방(機池坊) 입암향약(笠巖鄕約)의 구성원과 운영 변화」, 『역사민속학』 62 (2022).

6) 김윤미·이문재·문효근, 「주민자치 원형, 남원 입암 향약 사례: "입암 향약, 상부상조·환난상휼의 생활공동체"」, 《월간 주민자치》 136 (2023); 황재영, 「1893년 순창군의 향약(鄕約) 실시와 인보조직(隣保組織)의 강화」, 『한국사연구』 192 (2021); 이문현, 「1893년 전라도 순창군 팔등면 향약의 재구성: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일본민속학』 3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7); 이문현, 「19세기말 지방행정에서의 향약과 결역이정(結役釐整): 전라도 순창군수 이성렬(李聖烈)의 현실인식과 대응」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7) 무주군지편찬위원회, 『무주군지: 향토문화유적 편』 (무주: 무주군, 2004), p.147.

8) 안성면지편찬위원회, 『안성면지』 (무주: 안성면, 2018), p.379.

Ⅱ. 상하두향약의 역사적 전개 양상

상하두향약이 전승되는 두문·안기·도촌·궁대 4개 마을은 덕유산 남서사면 산자락 아래에 있다. 역사적으로 상하두향약이 전승되는 안성면 금평리 지역은 안성면 일대에서 가장 일찍부터 외래 낙향 선비들에 의한 상류층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온 지역이기도 하다. 두문마을에는 선조 13년(1580년)경 반남박씨(潘南朴氏)·인천이씨(仁川李氏)·달성서씨(達城徐氏) 등이 차례로 들어와 정착하면서 마을이 이루어졌다. 마을 동구에는 고려말~조선초에 불사이군(不事二君)으로 충절을 지킨 박힐(朴詰), 그의 증손이자 단종(端宗) 애사(哀史) 때 절의를 지킨 진산군수 박인(朴麟), 그의 아들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박희권(朴希權) 등 3인의 충절을 기리는 '반남박씨(潘南朴氏) 삼세충의비(三世忠義碑)'가 있다.

안기마을에는 호조판서(戶曹判書) 김여광(金麗光)의 아들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 벼슬을 지낸 낙안김씨(樂安金氏)[9] 은산(隱山) 김연(金淵)이 마을로 낙향하여 살았다. 이후 낙안김씨 집성촌의 마을이 되었다. 통덕랑(通德郞) 벼슬을 한 그의 아들 양청당(兩淸堂) 김경준(金景俊)은 바로 옆 마을인 도촌(島村) 마을 앞에 '양청당(兩淸堂)'이란 정사를 짓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안성 고을의 선비 양성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에 보인다.[10] 도촌마을에는 유씨(劉氏)·신씨(申氏)·고씨(高氏)가 처음 입향하였다. 궁대마을은 『상하두향약안』 중수를 맡은 경산 이용우 선생이 살았던 마을이다.

상하두향약에 대해 지역민들이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이를테면, 두문향약(斗文鄕約), 두남향약(斗藍鄕約), 두궁안도향약(斗弓安島鄕約)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향약안의 기록 명칭 그대로 '상하두향약'으로 기술하나, 향약소 두남재를 건립하면서부터는 '두남향약'으로 불리고 있어서 두 가지로 병기한다.

---

9) 순천김씨와 같음.
10) 안성면지편찬위원회, 앞의 글, p.558.

1. 상하두향약의 창립

상하두향약은 반남박씨(潘南朴氏) 직장공파(直長公派) 21세손 심암(深菴) 박남수(朴南壽, 정조 21년 1797년丁巳年~미상)가 중심이 되어, 함께 더불어 사는 인근 마을들의 미풍양속을 위해 창립되었다. 창립연대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①순조 연간 1820년 즈음에 창립된 견해, ②고종 9년 1872년 창립된 견해이다. 이에 관한 근거 자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순조 연간 1820년 즈음에 창립된 견해에 관한 근거는, 첫째, 경산 이용우(李用雨, 1875~1963) 등이 중심이 되어 1924년 편찬한『상하두향약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우리의 '상하두향약'은 심암 박공 남수께서 처음 만드셨다. 그 후 여러 장로들께서 옛 규약을 따르며 해를 보낸 지 백여 년이니, 이때가 또한 (향약이) 번성할 즈음이었다. 선비들은 이 때를 가리켜 "알맞은 때로다!"라 하였고, 백성들은 "즐겁도다!" 라고 하였으니, 두메 마을의 풍속이 아름다운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었다.[11]

이 기록에 "상하두향약은 심암 박공 남수께서 처음 만드셨다."라는 구절과 "옛 규약을 따르며 해를 보낸 지 백여 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상하두향약안』을 중수한 1924년 시점에서 100여 년 전을 산정해 보면, 향약의 창립 시기가 대략 1820년 즈음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938년 '향약사적발(鄕約事蹟跋)' 기록에도 "백몇십 년 동안의 오랜 변천 과정은 알지 못한다"라는 대목에서 볼 때 창립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

11)『상하두향약안』, "上下斗鄕約 自深菴朴公南壽始創焉 厥後諸長老循蹈舊規 經年百餘世 亦盛際士曰 時哉 民曰 樂哉 峽俗之美良有以也."

> 생각해 보건대, 이 향약은 심암(深菴) 박 공으로부터 유래가 시작되었으나, 백몇십 년 동안의 오랜 변천 과정은 알지 못한다. 오호라! 갑오년 동학 소요 이후, 향약이 점차 느슨하여졌도다. 나는 박 공 호양(瑚陽), 서 군 병두(丙斗)와 향약에서 일을 주선한 지가 여러 해 되었다. 향약의 여러 규약을 대략 모두 알지만, 향약의 소유 재산은 불과 두 섬의 세를 바칠 수 있는 땅이 있을 따름이었다. 향약에서 시행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게 없고, 다만 풍신제(風神祭)에 용하(用下)로 술과 음식으로 들어간 비용을 합의하여 장부에 적어둘 뿐이었다. 옛적에 이른바 고삭(告朔)의 예(禮)로서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형식을 남겨 두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12]

셋째, 『안성면지』에 기록된 '두남재 향약소지' 내용에 따르면, 이 향약의 유래를 200여 년 전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이 안성면지가 발행된 2018년을 시점으로 보면 약 1820년 즈음이 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두남재 향약소지(斗藍齋 鄕約所址)**
>
> 두남재 향약소지는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 마을에 있다. 이 소지(所址)의 유래는 지금부터 200여 년 전 이 마을에 살던 박남수 선생이 농민들을 계몽하기 위하여 규약을 만들고, 마을 정자를 집회소로 하여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고, 시대에 앞서가는 선량이 되도록 가르치면서 연유되었다. … [13]

② 고종9년 1872년 창립에 관한 근거로는, 『무주군지』에 기록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향약소 '두남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남전향약'을 1872년에 처음 만들었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해 놓았다. 여기서 '남전향약'이라는 말은 '두남향약'을 일컫는 말이다.

---

12) 『경산유고』, 「향약사적발(鄕約事蹟跋)」.
13) 안성면지편찬위원회, 앞의 글, p.379.

두남재(斗藍齋)

안성면 금평리 두문 마을에 있다. 고종 9년(1872) 심암 박남수가 마을의 미풍양속을 위한 남전향약을 처음 만들었다. 그러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미풍양속의 문란과 함께 재각도 퇴락하였다. 이에 마을 출신 난사(蘭史) 박승화(朴勝華) 등 뜻있는 인사 10명이 모여, 1924년 새로운 향약을 만들고, 1932년 비로소 두남재(斗藍齋)를 세우게 되었다. 경산(耕山) 이용우(李用雨)가 상량문(上梁文)을 짓고, 단암(丹巖) 민병승(閔丙承)과 용재(龍齋) 박승희(朴勝熹)가 기(記)를 썼다. 두남재향약(斗藍齋鄕約)은 최근까지 전해져 왔다.[14]

무주군지에 기록된 창립 연대 "고종 9년(1872)"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향교재단에서 발행한『전북향교원우대관(全北鄕校院宇大觀)』[15]에도 다음과 같이 향약소 '두남재'에 관해서만 적시되어 있고 향약의 창립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斗藍齋

所在地: 茂朱 安城 斗文洞
향약소에서 지었다. 耕山 李用雨가 上梁文을 짓고, 丹巖 閔丙承과龍齋 朴勝熹가 記를 썼다.[16]

이 향약의 창립 시기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여러 기록상으로 볼 때 1820년~1872년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향약을 창립한 주요 인물은 두문 마을 출신의 반남박씨직장공파 21세손 '심암 박남수'임이 분명하며, 이분이 정조 21년(정사년(丁巳年), 1797년)에 두문마을에서 출생한 분임을『반남박씨직장공파세보(潘南朴氏直長公派世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분의 생몰연대를 60세까지 생존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보면, 1857년 이전에 이

14) 무주군지편찬위원회, 앞의 글, p.147.
15) 전라북도향교재단,『전북향교원우대관(全北鄕校院宇大觀)』(전주: 전라북도향교재단, 1994), p.713.
16) 같은 책, p.713.

향약이 창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선 여러 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1820년경 창립설이 유력해 보인다.[17]

2. 상하두향약안 내용

1) 향약의 결성 경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암(深菴) 박남수(朴南壽, 1797년~미상) 등이 마을의 미풍양속을 위해 처음 만들었다. 그 이후, 구한말 갑오동학농민혁명 등에 의해 쇠락해진 이 향약을 1924년(갑자년)에 박승화, 이용우, 민병승, 박승희 등 10여 명이 모여 미풍양속의 부흥을 위해 다시 전해오는 향약을 보완한 '상하두향약안'을 만들었다. 향약의 규정들을 담은 향약안 내용을 중수했다는 다음 기록 「상하두향약안서(上下斗鄕約案序)」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 족증조(族曾祖)[18]이신 심암공(深菴公)[19]께서 이를 시작하셨으니, 실로 이는 향약을 존중하여 믿었기에 비로소 시작하신 것이다. 동학의 도적들이 발호한 이래로 백성의 풍속과 인륜 · 도덕이 쇠퇴함이 마치 물이 더욱 혼탁하게 흐려짐과 같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날로 병듦이 마치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것과 같았으니, 이는 바로 향약이 거의 떨치지 못한 까닭이었다. 우리 마을의 지사들이 비분강개하고 우울해함을 어찌 차마 말로 다하겠는가?
>
> 지난 갑자년(甲子年)[20]에 족제(族弟)인 용재(龍齋) 박승희(朴勝熹), 섬계(剡溪) 유정순(劉定淳), 경산(耕山) 이용우(李用雨), 금촌(琴村) 강문식(姜文植), 경촌(耕村) 김병록(金炳祿), 벗 이현만(李鉉萬) 및 다른 뜻있는 사람들이 옛 향약을 다시 시작하기

17) 족보에는 박남수의 출생 연도만 있고 사망 연도 없음. 문중에서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함.
18) 친족 혹은 친척 관계에서 족보상의 증조할아버지.
19) 심암(深菴) 박남수(朴南壽).
20) 1924년.

로 이구동성으로 함께 꾀하였다.[21]

… 또한 비용이 들지 않고는 안 되어, 약간의 농토를 마련해 두었으니 섬촌(剡村) 앞 들에 있다, 이는 향약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이다. …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 必有隣)"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지론(至論)이라 하겠다. 이제 규약을 엮음에 있어, 바야흐로 서로 충분히 생각하고 상의하여, 마침내 선배들의 규약 가운데 번거로운 것은 간략하게 하고, 소략한 것은 촘촘히 하면서 다시 조목과 규약을 정했다. 비록 감히 꼭 알맞다고 스스로 말할 수는 없지만, 권선징악의 방도가 거의 빠짐없이 갖추어졌다. 아! 상하두의 풍속이 크게 바뀌지 않겠는가?[22]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갑자년인 1924년에 상하두향약 약원들 곧 이용우를 중심으로 하여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향약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향약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전답도 이미 마련해 두어 경제적 토대도 안정이 되어 있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향약안을 이용우가 맡아 새롭게 중수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서로 충분히 생각하고 상의하여, 마침내 선배들의 규약 가운데 번거로운 것은 간략하게 하고 소략한 것은 촘촘히 하면서 다시 조목과 규약을 정했다는 것이다.

2) 상하두향약의 목적

상하두마을[두문・안기・도촌・궁대]의 환난상휼(患難相恤),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등의 목적을

21) 『상하두향약안』.
22) 『상하두향약안』, 「서언(敍言)」.

위해 설립되었다.

덕업상권에서 덕(德)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으니, 부모를 효로써 섬김,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어른을 공경하여 섬김, 형제에게 우애함, 친척에게 화목함, 몸을 닦음으로써 도리로써 집안을 바르게 함, 예로써 이웃과 사귀며 구휼을 행함, 벗을 가림으로써 인(仁)을 도움, 자식을 가르침에 법도가 있으며 아랫사람을 부리는 데 법도가 있음, 상(喪)을 치름에 슬픔을 지극하게 하며 제사를 모심에 정성을 다함, 말을 함에 반드시 충신(忠信)케 하고 행함에 반드시 도탑고 공손하게 함, 선(善)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 허물에 대한 지적을 들으면 반드시 고침 등이 그것이다.

과실상규의 과실은 무릇 세 가지 조목이니, 첫째는 의(義)를 범한 허물이고, 둘째는 품행을 닦지 않은 허물이며, 셋째는 규약을 범한 허물이다.

예속상교는 예속(禮俗)으로써 사귐에는 무릇 네 개의 조목이 있다. 첫째는 존(尊)·유(幼)·배항(輩行)이고, 둘째는 나아가 청하는 것과 절하고 읍하는 것이며, 셋째는 청하여 부르는 것과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며, 넷째는 경사와 애사에 증여하는 것이다.

환난상휼의 환난(患難)에는 무릇 일곱 개의 조목이 있으니, 첫째는 물과 불이고, 둘째는 도적이며, 셋째는 질병, 넷째는 사상(死喪), 다섯째는 고약(孤弱), 여섯째는 무왕(誣枉), 일곱째는 빈핍(貧乏)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했는가는 향약의 실제 운영기록인 『도조기(賭租記)』, 『금전대부원장(金錢貸付元帳)』 등에 나타나 있다. 즉,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사례로는 일제강점기~2000년대 현재까지 작성된 『도조기』에는 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곡(錢穀)을 마을 주민들에게 대부하여 환난상휼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다.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의 사례도 『도조기』의 여러 곳에 약원이 약규를 어겼을 때 어떤 식으로 상벌을 내렸다는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23] 이를테면, 갑진(1904)년 10월 24일자 향약 도조기 내용에 선

23) 이에 대한 분석 및 타 향약과의 비교 등은 더 구체적으로 후속 연구로 이어질 예정이다.

과 악을 구분하여 기록해 놓았는데, 선한 사람에게는 고기 두 근씩 상으로 주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24]

선(善) 상(賞) 정육 2근씩

도촌마을 유경락 처 배 씨 시부모를 잘 모심
신현복 부 백 씨 과부로 살면서 시부모를 잘 모심
안기마을 김찬경 부모를 잘 모심
상두마을 박승학 처 유 씨 과부로 살면서 제사에 정성을 바치며 유복자를 가르치고 기름
김사문 효성이 지극함
장구마을 곽덕완 부 서 씨 시부모를 잘 모심

악(惡)

상두마을 이사언 불효
김회술 불효
도촌마을 김중현 자불효
유도락 불효
신윤백 불효

3) 상하두향약의 조직 및 회의

조직 구성은 임원으로 약정(約正) 1인과 부약정 2인, 유사 2인, 직월 4인이 있다. 약정은 약원 가운데에서 나이가 많고 덕행이 높으며 문장과 행실이 갖추어진 사람을 추천하여, 대중들이 모두 좋다고 한 뒤에 임명할 것을 허락하였다. 돌아가면서 직을 맡되 2년으로 기한을 정하였다. 만약 마땅한 사람을 정하기가 어려우면 연기해도 무방하였다. 향약의 유사(有司) 2인은 문장과 행실이 갖추어지고 사리를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대중이 추천하여 임명한다. 돌아가면서 직을 맡되 기한은 약정과 다름이 없지만, 이 역할은 향약의 재물과 가장 관계가 있으니 만약 두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이러한 기한에 구속되지 않는다. 직월(直月)은 각 마을마다 1인을 두는데 향약의 지

24) 『도조기』.

휘에 의하여 일을 이행한다.

향약에 들어오려는 자는 향약안에 이름을 적되 입회비를 내어야 약원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 임인(1902) 11월 27일 향약 도조기에 "신입(新入) 1냥(一兩) 작년 조에서 1냥으로 영구히 정하여 지급됨(以一兩永爲定給)"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약원으로 입회할 때 1냥을 내었음을 알 수 있다. 덕업(德業)이 볼만한 자는 문서에 이름을 적어두었으며, 과실을 서로 규제해야 할 자도 또한 적어두었다.

모임을 여는 날짜는 매년 봄, 가을로 하여 각각 한 차례 향약을 실시하였다. 이때 하지(夏至) 다음날 향약에서 풍암(風巖)에서 제를 지낼 준비와 결산 회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임시 모임은 마땅한 때에 따라 날짜를 정하여 모인다. 만약 권선징악의 일로 인하여 따로 실행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유사가 날짜를 잡아서 동약(同約)들에게 통지한다.

4) 향약소 건립

1932년 향약소로 '두남재(斗藍齋)' 건물을 세우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음과 같은 몇몇 기록에 의해 건립 배경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재원이 유지되며 혹은 땅도 사서 두었고, 또한 향약의 회의가 있으면 매번 정해진 장소가 없는 까닭에 항상 염려되던 중에, 금평(琴坪) 마을[25]의 이남해(李南海)의 집이 안성면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마침 이를 구입할 계제가 되고 시가로 보아도 또한 무난하여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 임신년(壬申年)[26] 겨울에 이 건물 개축공사를 시작하여, 다음 해를 넘기고 갑술년(甲戌年)[27]에 공사를 마치었다. … 향약에서 소유한 건물 재물로는 오로지 이 기와집인데, 동쪽과 서쪽의 방이 합하여 삼 칸이고, 각 칸마다 반쯤 툇마루가 아울러 있다. 대청 또한

25) 이 당시에는 두문·안기·도촌 마을이 '금평2리'에 속해 있었다. '금평' 마을은 '금평 1리'에 속해 있던 마을이다. 궁대 마을은 '금평 1리'에 속해 있었다.

26) 1932년.

27) 1934년.

> 네 칸이니, 이와 같은 규모여서 회의에 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다.[28]

이 건물이 1932년 두문마을에 지은 향약소 건물 '두남재'를 말한다. 지금의 금평리 금평 마을 이남해의 집을 매입하여, 이 건물을 1932~1934년 사이에 두문 마을로 이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향약소 건물 두남재를 완성한 것이다.

경산 이용우 선생은 4개 마을 가운데에 두남재의 위치를, 적당한 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또한 남전(藍田)의 고사(古事)를 들어 재실의 이름을 두람(斗藍)이라고 한 이유를 「두남재기(斗藍齋記)」에 설명해 놓았다. 아래 「두남재기」에 실린 일부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무릇 네 구역으로부터의 거리가 균등함으로 인해 우리 향약 약소(約所)의 자리를 두릉(杜陵)의 양지쪽에 잡았으니, 이는 서쪽의 대산(臺山)과 북쪽의 섬계(剡溪)서 오고 가는 데 있어 마침 가운데 있소. 다만 안기(安基) 한 쪽만 작은 언덕 사이에 있지만, 아침저녁으로 상종하는 데 무슨 꺼림이 있겠소? 용마루가 이미 이루어져, 재실의 이름을 두람(斗藍)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상하두가 남전(藍田)의 고사(古事)를 본땄다는 뜻을 취한 것이오. 오로지 우리 향약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선배들의 뜻을 본받아서, 덕업을 서로 권하며 사설(邪說)에 흔들리지 않음이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지주(砥柱)와 같고, 예속으로 서로 사귀어 헛된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음이 한겨울의 소나무, 잣나무와 같으리니, 이 재실을 지음이 어찌 오로지 노닐며 시를 읊조리는 한때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겠는가? 실로 세도(世道)의 성쇠(盛衰)와 관계됨이 있으니, 여러 군자들과 더불어 서로 힘써 두남재와 향약이 훗날에 영구히 기려지도록 하기를 원하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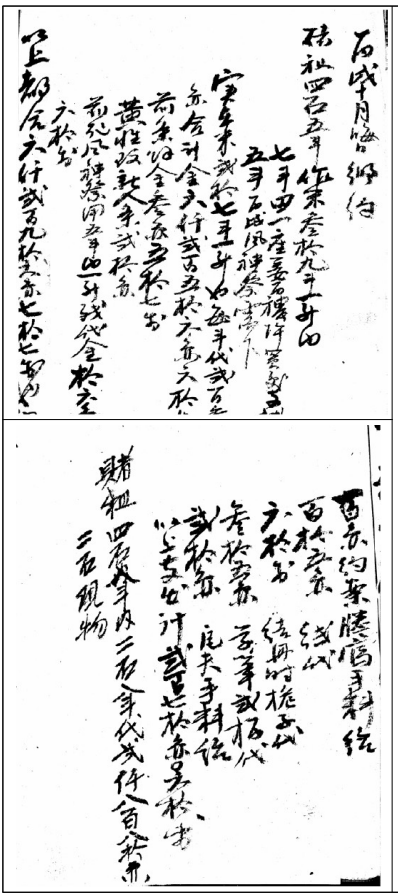
---

28) 『경산유고』, 「향약사적발」, "爲財源維持, 或買土以置之. 且鄕約之會, 每無定所故, 恒是爲慮中, 琴坪李南海家稱安城甲第, 適有階梯, 而於時價亦無妨, 因爲買受. 壬申冬始役, 越明年甲戌畢工焉. … 鄕約所有之物, 維此瓦屋, 而東西房合三間, 各幷半退於間, 大廳亦四間, 如此則可以容來會之人."

29) 『상하두향약안』.

5) 향약안의 등사 및 한글 번역본 발간

다음은『금전대부원장(金錢貸付元帳)』1946년(병술년) 10월 기록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 있다.



병술(1946) 10월 그믐날 향약

도조 4석 5두 작미(作米) 39두 1되 내(內)에서
7두 밭 한 자리(一座) 강병직에게서 매수(買收)하여 지불
5두 병술(丙戌) 풍신제 제수(祭需) 하(下)
실재 쌀 27두 1되 내에서 매 두 대금 203원 합계 금 6,256원 60전
전(前) 조목(條) 나머지 돈 3원 57전
황성문 신입 조 20원
전기(前記) 풍신제 용 5두 내(內) 1되 나머지 대금 16원 60전
이상 도합 6,296원 77전

100원 약안(約案) 등사 수고비 지급
150원 종이 값
60원 제책 시 궤자(掩子) 대
35원 학필(學筆) 두 자루 대
20원 기와공 임금 지급
이상 지출계 270원 60전[30]
도조 4석 8두 내內 2석 8두 대금 2,880원, 2석 현물

<그림 1>『금전대부원장』의 1946년 10월 기록 원문과 번역문

30)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상태이며, 지출 합계에 관한 정확한 산술적 근거 및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 진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기록을 보면, 1924년에 중수한 상하두향약안을 1946년에 와서 등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상하두향약이 1924년뿐만이 아니라 해방 후인 1946년(병술년)에도 중수되었다는 사실인데, 이 역할은 1924년의 향약안 중수 때와 마찬가지로 궁대마을 출신 경산(耕山) 이용우(李用雨)가 맡아서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문헌 기록을 통해 향약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乙卯 陰十月 晦日 總會 議決
鄕中에 居住 人士 中에 善行者 表彰 後에 年中行事 費用을 決算하고 斗藍齋案由來 矩規를 國文으로 飜譯하기로 議決함.[31]

② 乙卯 陰十一月 十五日 臨時會
鄕約案 飜譯 問題는 各 有司가 各 部落別로 約員會를 開設하여 希望 部數를 審問 把握키로 함. 冊價는 大略 千五百圓 程度로 豫算함.[32]

③ 丙辰年 正月 二十二日 役員會
上下斗 鄕約案 飜譯
韓國名鑑에 斗藍齋 事蹟 登錄[33]

④ 鄕約案 一卷
約員名簿 一卷
錢穀出納臺帳 一卷
決議簿 一卷
時到記 一卷
耕山遺稿 慶州 李用雨氏 文集 上下斗約에 有功
資産 및 金錢臺帳 一卷 湄紙로 새로 結冊

31) 『會議錄』, 1975년 음력 10월 그믐, 총회 의결.
32) 『會議錄』, 1975년 음력 11월 15일, 임시회.
33) 『會議錄』, 1976년 음력 정월 22일, 역원 회의.

會議錄 一卷
時到記 一卷
斗爛齋印 一個
書床 一個
石硯 一個
筆墨 各 一個
硯箱[34]

이상의 자료 중 ①의 "斗藍齋案 由來 矩規를 國文으로 飜譯하기로 議決함"이란 기록은 을묘년(1975) 10월에, 두남재 유래가 기록된 구규 곧 법규를 한글로 번역하기로 했다는 기록이다. 향약안이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번역하는 이유를 들었다.

②는 같은 해에 앞서 의결한 약원회의를 열어서 번역본 희망 부수를 파악하기로 하고 책값을 일천오백 원으로 예정했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앞의 斗藍齋案 由來 矩規가 곧 '鄕約案'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은 그다음 해인 병진년(1976) 정월 22일에, 앞서 번역하기로 의결한 '향약안'이 번역되어 나왔다는 사실을 '上下斗 鄕約案 飜譯'이라 기록해 놓고 있다.

이상의 ①~③ 기록은 1975~1976년에 걸쳐 옛날 향약안이 한글로 번역되어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④는 을묘년(1975)년에 기록된 '資産 및 錢穀臺帳(斗藍齋)' 문서의 '備品部'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鄕約案 一卷'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물론, 이 향약안은 앞서 언급한 ①~③ 기록의 그 '鄕約案'임은 물론이다.

34) 『자산 및 전곡대장』(西紀 一九七五年 資産 및 錢穀臺帳 斗藍齋, 備品部.)

이상의 ①~④ 기록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1975년 당시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순 한문으로 기록된 향약안 원문을 일반 약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려고 국문으로 번역하기로 의결하였고, 1976년 연초에 이 작업을 완성하였다.

둘째, 1976년에 번역한 고본 '향약안' 번역문이 어디엔가 남아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이 번역본은 발견되지 못했다. 이 번역문 자료가 발견되면 이 향약 기록의 역사성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Ⅲ. 문화유산으로서 상하두향약의 특성 및 가치

상하두향약과 관련된 주요 문화유산은 유형과 무형의 유산으로 구분·정리하여 그 특성과 가치를 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향약과 관련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무형의 문화 유산이 다른 향약과 달리 다양하게 지속해서 전승되어 왔기 때문이다.

1. 유형유산

1) 고문서 자료

우선 이 향약과 관련된 고문서들은 중요한 유형유산이다. 이 유형의 유산은 상하두향약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기록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유형유산은 현재 상하두향약 회원들이 향약소에 보관 보존하고 있는 고문서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구체적인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① 상하두향약안(上下斗鄕約案)

② 도조기(賭租記) [임인(1902) 11. 27~기사(1929) 11. 6.]

③ 금전대부원장(金錢貸付元帳) [경오(1930)년~계묘(1963)년 5월]

④ 전곡대장(錢穀臺帳) [계묘(1963)년 10월~갑인(1974)년 10. 30]

⑤ 자산(資産) 및 전곡대장(錢穀臺帳) [을묘(1975)년 3월~임오(2002)년 10. 30]

⑥ 회의록(會議錄) [경자(1960)~경인(2010) 4. 21]

⑦ 시도기(時到記) [을묘(1975)~경인(2010)]

⑧ 각종 계약서(契約書) 등 기타



<그림 2> 상하두향약안(19㎝×27.5㎝) 및 그 외 자료

2) 고문서의 주요 내용

상하두향약의 현전 고문서 자료 목록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향약 기록물 목록 및 내용

순서	목록	내용
1	상하두향약안	서언, 범례, 풍신제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회집강약지법, 부록: 상읍례범례, 동규급람-전향약상읍례도식, 상읍례주자백록동규, 람전여씨향약. 상하두향약안 후기(3명), 두람시집(서문, 詩 64편), 상량문1. 記2(두남재기, 석) 등
2	회의록	① 현재 남아 있는 회의록은 경자년(1960) 10월 30일부터 경인년(2010) 4월 21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② 향약소 건물인 '두남재'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③ 향약 재산·경비 거출 및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회의 때마다 기록되어 있다. ④ 상례 등 약원들의 주요 관혼상제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기록들이 있다. ⑤ 임원 선출 및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⑥ 향약의 주요 제례인 '풍신제(風神祭)' 거행·비용 거출 및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⑦ 향약 약칙(約則) 제정, 개정, 선거, 운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⑧ 선악자 상벌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런데, 벌(罰)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⑨ 향약 총회 일자 참석 시간 엄수에 관한 기록이 있다. ⑩ 무주지역 주요 인물들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다. ⑪ 약원(約員) 자격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⑫ 향약 조직구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⑬ 주변 주요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록들이 있다. ⑭ 재난 수준의 약원(約員)의 채무 탕감 보호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⑮ 향약 행사 운영 규정들이 들어있다. ⑯ 향약안 옛날 법규 규정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기록이 보인다.[35] '한국명감(韓國名鑑)'에 '두남재' 사적을 등록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⑰ 시기별 향약 참여 인원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향약14-4) ⑱ 두남재 관련 등 향약 관련 토지 매입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19-1)
3	시도기	시도기에는 현재 1975년~2010/현재 사이의 기록이 남아 있다. 시도기 내용은 어느 때 어느 회의에 누가 참석했다는 기록 내용이다. 기록 방식은 먼저 회의 시기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회의 명칭/주제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참석자 명단을 일일이 기록하는 방식이다.

4	도조기	1902년~1929년 사이의 도조를 사업 운영 관리를 기록해 놓았다.
5	금전대부원장	이 기록은 1930년부터 1963년까지의 이 향약 관련 전곡출납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다.
6	전곡대장	이 부분은 1963년부터 1974년까지의 상하두향약 전 재산 중에서 동산[백미,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7	자산 및 전곡대장	1975년 을묘(乙卯) 3월~2002년 총목록 내용은 1. 자산부(資産部), 2. 비품부(備品部) 3. 전곡출납부(錢穀出納簿)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8	기타 기록물	보관증(1963), 가옥건축계약서(1967), 가옥재목보관증(1967), 대지매매계약서(1986), 영수증(1986) 등.

위와 같이 상하두향약에는 역사적 실상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상하두향약안』·『도조기』·『금전출납대장원장』·『회의록』·『시도기』 등의 고문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약 관련 주요 유형유산인 건축물도 있다. 향약소 건물인 '두남재'가 있으며, 교육을 담당했던 '흥감재(興感齋)' 건물 등이 있다.

3) 건축물

두남재(斗藍齋): 향약소 건물인 두남재는 상량문을 확인한 결과 건립 연대가 임신년(1932년)으로 확인되어 94년 된 건물이다. 앞서 언술했듯이 이 건물은 인근 금평 마을에 오랫동안 존재하던 이남해(李南海)의 집을 1932년에 매입하여, 1932~1934년 사이에 지금의 장소로 이축하고 보수·개축 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향약소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1932년보다 훨씬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므로 이 건축물의 연대는 사실상 100년 이상 된다.

'전곡대장' 1936년 4월 자산부 기록에 의하면, 4칸 본채와 관리인이 사용하는 삼 칸 초가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병오년(1966) 11월 2일 총회 결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에도 "수호인 가옥을 후년에 개축키로 결의함", "행랑 3간을 복구키로 결정함"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관리인이 거주하는 행랑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5) 현재 한글 번역본은 찾지 못한 상태이다.

두남재 건물 외양은 현재 기와가 아닌 양철 지붕으로 개량되어 있다. 4칸 겹집에 민도리식, 팔작지붕이며, 세살문, 빗살문 등 다양한 창호와 마루의 높낮이를 달리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는 등 의장적 요소를 가미하여 향약소로서의 격을 갖추고 있다. 건물 내부에는 두남재기, 두남재중수기, 두남재를 주제로 한 2편의 시(詩) 현판 2기가 있다. 근대 한옥건축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문화유산으로 지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흥감재(興感齋): 이 건물은 두문마을 동쪽 두문산 흑룡골 흥룡사 건물을 옮겨다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흥룡사 사찰 건립 연대를 파악하게 되면 이 흥감재 건물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 앞으로 이 고증 작업에 따라, 이 건물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확정될 것이다. 현재로 파악하기에도 이 건물의 도리, 기둥 구조 및 여러 구조면에서 수준 있는 건물로 보인다. 4칸 겹집의 팔작지붕이며 전면을 초익공으로 처리하여 격을 갖추고 있다. 일반 한옥 건축물에서 방형을 사용한 것과 달리 전후측면이 모두 원주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찰 건축물을 이축하였다는 제보를 확증시켜 준다. 일반 건축에 원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던 시기가 있었고, 왕실이나 사찰 건축에 원주를 사용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 물론 근대 이후에 부유한 집안에서는 원주를 사용하였고 인근 지역에 그러한 경우가 보이기도 한다.[36]

이 외에도, 이 지역에는 향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화유산 으로서 방선대(訪仙臺)・삼세충의비(三世忠義碑)・양청당(兩淸堂) 터・두산대(斗山臺)・용호대(龍虎臺)・금사대(琴沙臺)・유산정(裕山亭) 등이 있다. 이 중에 방선대는 향약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구비전승 관련 자료라는 점에서, 삼세충의비도 이 지역 유교문화의 오랜 전통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유형문화 유산이라는 점에서, 양청당 터는 이 지역 서당문화 전통을 대변하는 가장 오래된 유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두산대・용호대・

36) 전북특별자치도 산간지역인 임실군에도 근대 이후 민가/마을에서 원주를 사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허정주・오수민, 「전북 임실군 삼계면 어은마을의 건축-공간적 특성 고찰」,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5-2 (2023), p.41.

금사대·유산정 등은 이 지역 오래되고 다양한 유교적 '선비문화' 전통을 대변하는 유적들이라는 점에서, 각각 그 나름대로 중요한 유형의 문화유산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림 3> 흥감재(좌)와 두남재(우)

2. 무형유산

1) 풍신제(風神祭)

현재 풍신제는 상하두향약 조직에서 해마다 여름 하짓날에 '두남재' 건물에서 지내는 유교식 제사이다. 제사 대상은 '풍신(風神)'이다. 지금은 향약소 두남재에서 하짓날 유교식 제사 형태로 지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지금의 형태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었다. 『상하두향약안』 범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5월 하지(夏至) 다음날 향약에서 풍암(風巖)에 제를 지내는데, 옛적부터의 관례이니 경건하게 행하지 않을 수 없다.[37]

이 기록에 따르면 현재 약원들의 제보처럼 하짓날 풍신제를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다음날 거행했으며, 덕유산 자락 골짜기에 있는

37) 『상하두향약안』, 「범례」.

큰 바위(바람바위/風巖)에서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장소가 바뀌게 되는 기록이 있다. 1984년 10월 그믐날 약회 기록에 “명년부터 연년 행사인 풍신제 행사를 두문 흥룡산(興龍山)[38] 아래 참샘골에서 행사키로 하자고 의결했다.”[39]라고 기술해 놓고 있다. 이로 보아 1985년부터 두문산/흑룡산 참샘골로 풍신제 지낸 장소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마을을 중심으로 덕유산 골짜기에 있는 큰 바위 풍암에서 지냈고, 이후 마을 북서쪽 두문산 골짜기에 있는 ‘참샘골’로 장소가 바뀌었다. 실제로 흑룡산(두문산)에 흑룡사가 있었고, 그곳 참샘골에 넓은 바위가 있어 거기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40]

풍신제 절차는 두남재에서 약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먼저 한다. 그 다음 미리 준비한 제물을 챙겨서 참샘골로 올라가 풍신제를 지내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관[초헌・아헌・종헌]도 미리 선출해서 두루마기 입고 갓을 쓰고 5~6명이 산으로 올라간다. 풍신제 제사는 유교식 제사였으며, 현재는 이 모든 절차를 향약소인 ‘두남재’에서 행하고 있다.

풍신제 회의는 향약장이 부치고 가을 정례회의 때에 정산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도촌마을에 풍신제 행사를 위한 ‘향약 논(畓)’이 별도로 있어서, 이 논을 짓는 사람이 해마다 쌀 2가마니를 내놓았다. 이것을 1년 운영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풍신제를 지내는 목적은 “농사 잘되고, 집안과 동네가 편안하라고 지내는 것과 덕유산 바람이 몹시 세게 불어서, 겨울날 덕유산 골짜기의 춥고 매서운 바람을 견디기 어려운 환경”[41]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우순풍조’ 곧 바람이 순탄하고 조화

38) 현재 두문산을 일컬음.
39) 『회의록』, 1984(갑자)년 10월.
40) 신용대(남, 1935년생), 도촌마을 거주, 조사일: 2025. 6. 6. / 2026. 4. 28.
41) 신용대(남, 1935년생), 도촌마을 거주, 조사일: 2025. 6. 6.

롭게 불어야만 풍년이 든다는 이러한 무의식적 인식에 근거하여 '풍신/바람'은 지역 공동체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 되어, 가장 양기 많은 날임과 동시에 점차 양기가 쇠하기 시작하는 기점으로 제를 지내게 되었을 것이다.

풍신제 행사는 두문향약 공동체가 이 향약 창립 이후에 아주 특별한 국가적 변란 등을 제외하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행해 온 두문향약 가장 중요한 제의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42]

2) 낙화놀이

낙화놀이는 원래 이 마을 서당의 학동들이 사월 초파일날 놀던 일종의 서당놀이였다.[43]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낙화놀이도 향약과의 연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두문마을 및 도촌마을에 존속하던 서당들은 향약과의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하던 마을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상하두향약 「금전대부원장」을 보면, 1949년 10월 30일 기록에 "서당계 묵은[舊] 세 대금 2,650원"[44]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당시 2,650원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481만 원 정도가 되는 매우 큰돈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향약이 서당계 곧 흥학계(興學契)에 매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낙화놀이는 향약이 절대적으로 지원해 온 서당계 운영에 관여했던, 서당의 학동들이 놀던 불꽃놀이였다. 이 '낙화놀이'도 향약과 관련된 매우 귀중한 무형문화 유산으로 이 놀이 자체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42) '풍신'에 관해 별도의 논의는 고를 달리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43) 김익두, 『무주 안성 낙화놀이 조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2009), p.31.
44) 『금전대부원장』, 기축(1949) 10월 30일 향약.

3) 당산제

상하두향약의 중심 마을인 두문·궁대·안기·도촌마을 4개 마을이 해마다 연행해 온 각 마을별 마을굿인 산신제 혹은 당산제도 중요한 무형문화 유산이다. 왜냐하면, 이 동제도 향약의 매우 중요한 제의적 기반이며, 이러한 제의적 기반을 토대로 이것들이 연합해서 결국 향약의 4개 마을 연합 공동 풍년 기원 제사인 '풍신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당산제는 4개 마을 중 두문·도촌 마을에 아직도 살아 전승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마을 궁대·안기 마을도 그 관련 자료들이 남아 있어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풍신제·향약 정기총회·동제 및 당산제 등의 관행은 무형유산으로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관행들 자체가 바로 상하두향약의 소중한 무형유산들이고, 이러한 마을 공동체의 관행들이 없으면 이 향약도 실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살아 있는 관행들과 이런 관행들을 기록한 고문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실제로 고문서만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 이 무형의 유산들을 보존·전승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3. 상하두향약의 문화유산적 의미와 가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하두향약은 여러 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문화적 의의와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이 향약은 향약을 운영해 온 두문·안기·도촌·궁대 4개 마을이 연합 조직을 이루어 도덕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마을공동체 조직을 오랫동안 유지·전개시켜 왔다.

둘째, 이 향약은 또한 그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20년즈음, 조선 후기에 창립되어 항일저항기 등의 근대사회를 거쳐서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가진 역사성을 지닌 의미 있는 향약이다.

셋째, 이 향약은 또한 이와 관련된 최소 100여 년 동안에 걸친 역사 기록들을 『도조기』·『금전출납대장원장』·『회의록』·『시도기』·『상하두향약안』 등의 고문서들로 남겨놓고 있어, 이를 통해서 상하두향약에 관한 역사적 실상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넷째, 또한 이 향약은 문화적인 면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풍신제·낙화놀이와 같은 소중한 무형의 유산들과 두남재·흥감재를 비롯하여,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방선대·양청당정사터·양청당 김경준 유허비·삼세충의비·두산대·용호대·금사대·유산정 등 일련의 소중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들을 축적하여 전승해 주고 있다.

다섯째, 이 향약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향약들 중에서도 여러 면에서 돋보이는 향약으로 평가된다. 돋보이는 점들로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이 골고루 다양하고 조화롭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 어떤 한 마을의 향약이 아닌 4개 마을의 연합 공동체 향약이라는 점, 그 역사가 200년이나 되며 그 전통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향약이 존속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살펴보면, 상하두향약에서와 같은 '풍신제' 제의를 행하는 곳이 파악되지 않는다. 타지역의 향약 조사에서도 이렇다 할 제의 형태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동계 조직이 촌락 제의에 관여한 사례는 있었다고 하나, 상하두향약에서와 같이 향약회의를 통해 향약원으로만 구성되어 직접적으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풍신제'와 같은 민속적 제를 지낸 경우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일곱째, 이러한 풍신제 관행 외에도 이 풍신제와 함께 이어져 온 향약의 봄·여름·가을 정기총회 관행도 중요한 무형유산이다. 4개 마을 주민의 공동 연합 형태로 조직되어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전승 보존되어 오고 있는 향약의 사례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산이다.

Ⅳ. 결어

전북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향약 전승제도의 문제점은 향약을 이미 죽어 있는 조직 제도로 보고, 그와 관련된 고문서들만을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향약의 전승 단체나 공동체 및 그들의 활동으로서의 향약 자치 활동에는 주목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향약의 중심인 향약 자치 공동체의 활동은 전혀 무형유산으로 지정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적인 상황은 역사적 자료인 향약 관련 고문서들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약은 그 자체로 볼 때 그 향약과 관련된 고문서가 결코 아니며, 그 향약안을 만들어 고문서로 보존하고, 그에 따라 수백 년 동안 자치 공동체를 유지 보존해 온 향약원들의 문화적 활동이 그 핵심이다. 즉 향약의 중심은 향약원들의 향약 자치 활동 자체이며, 그에 관한 기록인 향약문서들은 그에 부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는 그동안 자치 공동체의 향약 활동 자체에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그와 관련된 향약 관련 고문서들에만 관심을 기울여 향약 고문서들만을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하고, 정작 그 향약의 조직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지정 보호받지 못했다.

이런 결과로 결국 향약 관련 고문서들만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고, 정작 그 향약조직 구성원들의 '향약활동'은 점차 그 전승 현장에서 사라지는 아이러니한 역사적 기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농사짓는 방법을 기록한 고문서들만 남아 있고, 농사 자체는 짓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본고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상하두향약에 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향약과 같은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유형유산 측면에서만 다루면 안 되고,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양면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유산은 유형유산적 측면[고문서, 건물, 유물 등]과 무형유산적 측면[제례, 놀이, 관습 등]을 동시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향약 문화유산들은 모두 유형유산[고문서 등]으로만 지정 보호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양면에서 모두 지정 보호해야 한다.

셋째, 상하두향약은 이 향약과 관련된 건축물[두남재・흥감재 등]과 이 향약의 고문서[향약안・회의록・시도기・자산 및 전곡대장 등]는 유형유산, 풍신제 연행 방법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관행들은 무형유산이지만, 이것은 각각 지정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러한 형식으로 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상하두향약의 건축물 및 향약문서들이 유형유산이 되는 이유는 해당 건물 및 문서들이 적어도 100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그 건축물 자체로 문화유산적 의의와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울러, 상하두향약의 무형유산적 측면 곧 '풍신제' 연행 및 그에 관련된 관행들도 이 향약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형유산이 되며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향약 문화유산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향약의 무형유산적 측면에서 지정된 향약이 현재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다. 향약은 단지 '고문서'로만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원들의 제사 행위, 회의 및 관련 제반 관행 행위들에 의해 존재하고 존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상하두향약은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무주군 지역의 유일

한 향약 문화유산이자, 살아 있는 마지막 향약-공동체이자 유형·무형의 복합적 문화유산이다. 이런 면에서,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통합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문화유산 정책의 실천적 제안으로서 '복합-문화유산'에 대한 제고와 이 향약이 주요 복합-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되길 기대한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 논의한 '상하두향약/두남향약'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유무형의 유산에 대한 제도적 운용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참 고 문 헌】

『耕山遺稿』

『金錢貸付元帳』

『賭租記』

『潘南朴氏直長公派世譜』

『上下斗鄕約案』

『時到記』

『資産 및 錢穀臺帳』

『會議錄』

계남향약100년사추진위원회, 『계남향약백년사』, 장수: 계남향약소, 2014.

김익두, 『무주 안성 낙화놀이 조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2009.

김익두・허정주 외, 「한국 향약의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1차 조사 및 세미나 보고서: 정읍지역 향약을 중심으로」, 정읍학연구회・민족문화연구소, 2019.

무주군지편찬위원회 편, 『무주군지』, 무주: 무주군, 2004.

설동화, 「순창 이암면/구림면 향약안의 발굴과 향약의 역사」, 『순창문화』 18, 2024.

안성면지편찬위원회, 『안성면지』, 무주: 안성면, 2018.

올댓해리티지연구소 편, 『상하두향약』, 전주: 올댓해리티지, 2025.

이문현, 「19세기말 지방행정에서의 향약과 결역이정(結役釐整): 전라도 순창군수 이성렬의 현실인식과 대응」,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_____, 「1893년 전라도 순창군 팔등면 향약의 재구성: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일본민속학』 3,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7.

전라북도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全北鄕校院宇大觀)』, 전주: 전라북도향교재단, 1994.

한미라, 「1893년 전라도관찰사 김문현의 향약 시행과 운영 구조: 남원부와 옥구현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53, 한국중앙사학회, 2021.

_____, 「19세기 말 향촌지배질서 위기에 대한 대응 양상: 전라도 용담향약(龍潭鄕約)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4-2, 2021. https://doi.org/10.23013/localh.2021.24.2.001

_____, 「18~19세기 전라도 남원 기지방(機池坊) 입암향약(笠巖鄕約)의 구성원과 운영 변화」, 『역사민속학』 62, 2022. https://doi.org/10.22792/jkhf.2022..62.007

허정주・김익두, 『샘고을[井邑] 원촌(院村) 마을: 호남 제일의 선비 마을』, 서울: 광대와바다, 2019.

허정주・오수민, 「전북 임실군 삼계면 어은마을의 건축-공간적 특성 고찰」,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5-2, 2023. https://doi.org/10.14577/kirua.2023.25.2.35

황재영, 「1893년 순창군의 향약(鄕約) 실시와 인보조직(隣保組織)의 강화」, 『한국사연구』 192, 2021. https://doi.org/10.31791/JKH.2021.03.192.205

김윤미・이문재・문효근, 「주민자치 원형, 남원 입암 향약 사례: “입암 향약, 상부상조・환난상휼의 생활공동체”」, 《월간 주민자치》 136, 2023.

■ Abstract

Characteristics of 'Sanghadoo Hyangyak' ('Doonam Hyangyak') in Anseong, Muju-gun and Its Value as Complex-Cultural Heritage

Heo Jeong-joo
Senior Researche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CEO, Allthatheritage Research

The main Hyangyak in Jeonbuk-do include Gohyeon Hyangyak and Janggun-ri Hyangyak in Jeongeup-si, Iam/Gurim Hyangyak in Sunchang-gun, Wondong Hyangyak and Ipam Hyangyak in Namwon-si, Jucheon Hyangyak in Jinan-gun, Gyenam Hyangyak in Jangsu-gun, and Sanghadoo Hyangyak in Muju-gun. Among them, Gohyeon Hyangyak's ancient documents were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s, and ancient documents related to Wondong Hyangyak were designated as Jeonbuk Tangible Heritage. The Gyenam Hyangyak is protected by the designation of related ancient documents as local cultural heritage in Jangsu-gun. However, some ancient documents, including those related to Sanghadoo Hyangyak in Muju-gun, have not yet been designated and protected as forms of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designated items were only designated as tangible heritage, and none of the Hyangyak-community activities have been designated

as intangible heritage.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specific aspects, and cultural heritage characteristics of the ‘Sanghadoo Hyangyak’ handed down in Dumun Village, Geumpyeong-ri, Anseong-myeon, Muju-gun, which is still a living tradition at its transmission site, and to clarify its significance and value as a form of cultural heritage.

Since the forms of cultural heritage related to Sanghadoo Hyangyak hav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qualities, they must be designated as forms of cultural heritage in both aspects. In other words, ancient documents, buildings, and other artifacts and historic sites related to Hyangyak should be designated as tangible heritage, and Poongsin-je rituals and other customary activities related to Hyangyak should be designated as intangible heritage. In the en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n order to designate and protect this Hyangyak as a cultural heritage, it must be designated and protected as a form of ‘complex-cultural heritage’, a method of simultaneously designating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Keywords: Sanghadoo Hyangyak (上下斗鄕約), Doonam Hyangyak (斗藍鄕約), Complex-cultural heritage, Poongsin-je (風神祭), Doonam-jae (斗藍齋), Jeonbuk-do Muju-gun Anseong-myeon

논문투고일 : 2026.08.20. 심사완료일 : 2026.09.02. 게재확정일 : 2026.09.28.